

중국무술 고대 문헌자료 연구*

노동호**(남부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무술 고대 문헌자료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문헌자료의 시대별 특징과 발전과정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고대에서 무술서의 저작은 상무(尙武), 천무(賤武)의 사회기풍과 군사 무술 훈련체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상무기풍이 강하고 보병(步兵)무예가 중시되었던 한(漢)나라 때는 수박, 검도의 무술서가 저작되고 병서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한(漢)나라 이후에서 명(明) 중기까지 송문천무(崇文賤武)의 기풍과 사예(射藝)위주의 무과시행 등 원인으로 인하여, 무술서 저작은 『마삭보(馬鑠譜)』와 『각력기(角力記)』 두 권에 그쳤다. 명 중기 이후 왜구와의 전쟁으로 군영에서 보병무예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군사기들은 중국 동남쪽 연해지역의 민간무술을 집중 발굴하여 『기효신서』 등의 병서를 편찬하였다. 이후 병서에 수록된 권보(拳譜)의 위상이 크게 격상되고, 후대 무술서 저작에 인용되며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이 시기 편찬된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과 『역근경(易筋經)』은 후대 무술인들에게 소림무술의 바이블로 여겨지며 다른 무술서 저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청 이후 전통철학과 의학을 기반으로 무술과 공법이 융합된 『내가권법(內家拳法)』, 『육합권보(六合拳譜)』, 『장씨무기서(張氏武技書)』, 『태극권보(太極拳譜)』 등의 권보가 저작되며 새로운 유파가 탄생하였다.

주제어: 중국무술, 고대문헌, 권보(拳譜)

* 이 논문은 2021년도 남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hao@nambu.ac.kr

I. 서론

어떠한 전통 학문도 반드시 스스로 만든 영역의 문헌학이 있어야 하며, 또한 목록학(目錄學)을 해당 학문의 입문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학 영역의 어떠한 하위 학문도 이와 같으며, 무술도 예외일 수 없다(마명달(馬明達), 1999).

특히 고대 문헌자료에 관한 연구는 중국무술 전승과정의 발전과 변천을 파악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대에 따른 문헌자료는 그 시대의 특징과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일차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중국 학계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가장 먼저 1940년에 발행된 당호(唐豪)의 『중국무술도적고(中國武藝圖籍考)』는 중국무술의 고대문헌자료를 최초로 정리한 저서이다. 이후 중국정부 주도로 1983년에서 1986년까지 3년간 추진된 무술유산발굴사업은 중국 전역에서 1600여 개의 권법, 병기, 대련의 권보(拳譜)를 수집한다. 그리고 1991년 『중국무술권계록(中國武術拳械錄)』을 편찬하였다. 중국무술 고대문헌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명달(馬明達)과 주위량(周偉良)이 있다. 마명달은 2015년 중국 고대 무술문헌을 정리한 『중국고대무예진본총편(中國古代武藝珍本叢編)』을 발간하고, 주위량은 2018년 「논명청소림무술문헌(論明清少林武術文獻)」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 일본인 송전용지(松田隆智)는 『도설중국무술사(圖說中國武術史)』의 자료편에서 중국무술 고대문헌자료 33가지를 소개하였다. 이 책은 1979년에 우리나라 서립문화사에서 번역 출간하였고, 중국에서도 1984년에 사천과학기술 출판사에서 『중국무술사략(中國武術史略)』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도설중국무술사』는 당호(唐豪)의 『중국무술도적고(中國武藝圖籍考)』 이후, 최초로 출간된 중국무술사 연구서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술사 연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뒤늦게 중국 학계에서는 1985년에 성도체육대학 습운태(習雲太)교수가 『중국무술사』를 저술하고, 이어서 1994년에 복경체육대학

교 임백원(林伯源)교수가 『중국무술사』를 저작 발행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연관 연구가 상당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내 학계에서 중국 무술 고대문헌자료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고대 무술문헌에 관한 연구는 단지 중국무술의 전승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무예와의 비교연구, 교류사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명, 청시대의 무술문헌은 조선시대 무에서 편찬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국무술 고대 문헌자료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시대별 문헌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중국무술 고대 문헌의 시대 범주는 청말 즉, 신해혁명(1911년)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보았다. 내용은 도수, 병기무예 관련 문헌으로 제한하고 사법(射法) 문헌은 포함하지 않았다. 사법관련 전문서는 120여 가지 이상으로 내용이 방대하여 별도의 구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헌자료는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수집한 고서 및 근대 자료와 『중국무예도적고(中國武藝圖籍考)』, 『무술전적개소(武術典籍介紹)』, 『중국무술대사전』(1990), 『중국무술백과전서』(1998), 주위량의 「論明清少林武術文獻」(2018), 송전용지(松田隆智)의 『도설중국무술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췌하였고, 연구에 필요한 문헌목록을 작성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는 시대별로 문헌을 나열하여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헌 목록을 기초로 하여 문헌간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중국무술의 고대문헌자료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전체 문헌에 대한 수집과 열람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II. 先秦에서 宋, 元 이전의 무술 문헌자료 분석

무술 고문헌의 분류방식은 아직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마명달(馬明達), 1999)은 무술전문 저작류, 병서나 기타 저작에 단락의 형식으로 부속된 비무술전문저작류, 관가나 개인의 소장본과 원고, 해외로 전해지거나 해외에서 간행된 혹은 외국인이 소장한 무술고서, 즉 4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鄭勤, 王玉德, 張霞(2009)는 무술전문서, 병서 문집과 같은 두 가지 속성의 무술문헌, 諸子, 正史, 문학작품 등 무술과 연관내용이 있는 문헌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무술 고대문헌자료를 시대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진(先秦)시기를 1단계로 진한(秦漢)시기에서 송원(宋元)까지를 2단계, 명대(明代)를 3단계, 청대(清代)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주위량(周偉良, 2018)의 연구는 명대와 청대의 무술문헌을 한 시기로 구분하여 보았다. 하지만 명대와 청대의 무술문헌은 그 저작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확연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선진(先秦)시기에 무술을 주제로 한 단독 저작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주례』, 『예기』, 『시경』과 같은 경서나 사서(史書) 자료에 기술된 일부 내용을 통해 당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경서의 내용 중 무무(武舞)나 사예(射藝)와 연관된 문장, 『장자(莊子)』의 설검편(說劍篇)에 나오는 후발선지(後發先至)와 같은 검법이론,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등장한 월녀(越女)의 검술지도(劍術之道)*에 관한 기술은 선진시기의 무예교육과 검술이론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 『吳越春秋』 “소인은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격투의 도를 심히 좋아하여 쉬지 않고 암송하였습니다... 검도에는 문호가 있고 또한 음양이 있는데, 문은 열고 호는 닫으며 음이 쇠하면 양이 흥합니다... 일인이 백명을 당해낼 수 있습니다. (妾生深林之中 長於無人之野... 窃好擊之道 誦之不休... 道有門戶 亦有陰陽 開門閉戶 陰衰陽興... 一人當百)”

유일한 문헌자료이다. 하지만 전체 저작의 내용 중 무술의 비중이 매우 적고 다양한 경서나 사서에 산재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를 모두 무술문헌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시기의 문헌자료는 무술문헌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습운태(習雲太)의 『무술전적개소(武術典籍介紹)』, 『중국무술대사전』(1990), 『중국무술백과전서』(1998)에서 『주역』과 『손자병법』을 무술 고대 문헌자료로 포함하여 소개하였는데, 범주가 과도한 감이 있다. 과도한 범주의 설정은 문헌자료에 대한 집중과 분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표 1. 漢代에서 宋代의 무술문헌 목록

시대	문헌명칭	편저자	주요내용	비고
후한	手搏6편	미상	班固의 『漢書 藝文志 兵技巧』에 수록	失傳
	劍道38편	미상		
남북조	馬槊譜	梁簡文帝 蕭綱 (503-551)	마상창법, 古今圖書集成에 서문 수록 隋書 經籍志 목록에 수록	失傳
송초	角力記	調露子	오대십국에서 송나라 초기의 角力과 手搏의 기원과 발전과정, 명칭과 기록 등.	宋史 藝文志

후한시대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漢書)』는 한나라의 역사서이다. 『한서·예문지(藝文志)』는 당시 존재하였던 서적의 명칭을 수록한 도서목록을 말한다. 현재의 문헌정보 목록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군사관련 도서 목록을 병서략(兵書略)으로 분류하고, 여기서 다시 사법(射法), 수박(手搏), 검도(劍道), 축국(蹴鞠) 등과 같은 무예 관련 도서목록은 병기교(兵技巧)로 분류하였다. 즉 『예문지·병기교』 목록에 수록된 手搏6편과 검도38편은 당시 존재하였던 무예서의 명칭인 것이다. 목록만 전해지고 있어 문헌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수박, 즉

맨손격투기와 검술이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박6편과 검도38편은 최초의 중국무술 전문서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당시 수박과 검도가 군사무예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보병무예가 매우 중시되어 군영에서 활과 석궁, 창, 방패, 도, 검의 五兵* 훈련이 매우 중시되었다. 또한 한대(漢代)의 상무(尙武) 기풍도 무술서 저작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악관(樂官) 동방삭(東方朔)이 어릴 때부터 검술을 익혔다고 하는데, 이로써 궁정 밖의 평민들도 검술을 익히고 무예를 단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학자와 문인들은 학문을 닦으면서 검으로 대업을 완성하고, 무사로서의 절개를 확립하였다(陳山, 1997).

隋나라와 唐나라 이후 관가와 개인의 도서목록에서 무술도서는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를 보인다. 목록학의 분류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무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추이다. 목록학의 역사상 한서(漢書) 이후 무술도서는 말단으로 귀속되는데 자부병가(子部兵家)류에서 자부예술(子部藝術)류 심지어 잡예류(雜藝術)류 혹은 잡기(雜技)류로 분류된다. 도서의 수량도 갈수록 준다(마명달(馬明達), 1999).

수(隋)나라 당(唐)나라 이후 명말(明末) 까지 무술서가 거의 저작되지 않은 이유를 한나라 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군사적으로 보병무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한나라 때는 수박과 검도와 같은 보병무예를 군사무예로 분류하며 매우 중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은 바뀌는데 군사무예로서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당나라 무즉천(武則天) 때 시작된 무과제도의 시험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열 가지 시험 항목 중 다섯 가지가 활쏘기 능력을 측정하고 두 가지가 체력, 그리고 마상창법과 외형, 언어를 평가한다(무술연구원편, 1997).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한 것이다. 시험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맨손무예나 무기술 같은 보병무예는 없었다. 무과시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인식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무과시험의 중요과목인

* <漢官儀>云亭長皆習設五兵, 五兵 弓弩, 戟, 楯, 刀, 劍

활쏘기 射法에 관한 저술이 한나라부터 청나라 까지 120여 편이 발표된다(마명달(馬明達), 2003). 당(唐)에서 송(宋), 원(元) 시기에만 40여 편이 발표된 것을 비교하여도 그 시대에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송문천무의 시대적 분위기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은 유교의 이상주의적 왕도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무력을 천시하는 기풍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역대 문필가들은 무술을 소재로 하는 저작활동을 기피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었을 것이다. 다만 사예(射藝)는 유교 기초교육인 육예(六藝)의 하나였기에 예외로 볼 수 있다.

정사(正史)의 편찬에서 무술서가 갖는 위치와 비중의 변화는 중국무술 변천 과정의 중요한 변곡점을 설명한다. 군사위주의 고대 무술에서 다양한 민간무술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宋代에 이르러서는 공연 오락시설인 와사(瓦肆)가 생기고, 사봉(使棒), 사권(使拳), 상박(相撲), 투자(套子) 등의 오락 관람 목적의 무술공연이 성행한다. 상업경제의 변영과 시민계층의 확대는 시민문화의 진흥을 촉진하였다. 상업화된 무술활동은 급속 발전하여 무술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수많은 무술인들이 출현하였다(무술연구원편, 1997). 『각력기(角力記)』가 송대에 편찬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했다고 본다.

또한 남북조 시기의 유일한 무술 문헌자료인 『마삭보(馬槊譜)』는 마상창법에 관한 것이나 서문만 전하고 책은 유실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책의 제목인 마삭보의 “보(譜)” 자에서 중국무술서의 체계적 발달을 엿 볼 수 있다. 이 책은 중국무술 저작 중에서 처음으로 ‘보’의 개념을 사용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먼저 ‘보’의 뜻을 살펴보면, 고문 사전인 『설문신부(說文新附)』에서 보(譜)는 적록(籍錄)이라 해석하였는데, 이는 계통과 순서가 있는 기록을 말한다.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1997)에서는 대상의 유형과 계통에 따라 표나 정제된 형식으로 편찬된 책으로 해석하였다. 고문과 현대문에서 모두 대상을 체계화하여 기록한 책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중국무술서

의 서명에서 ‘보(譜)’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무술의 이론이 무술의 계통과 순서에 따라 체계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明代의 무술 문헌자료 분석

한나라 이후 명나라 중기 당순지(唐順之)의 『무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약 1000년간 무술서는 남북조 시대의 『마삭보』와 송대의 『각력기』 두 권 뿐이다. 하지만 무편을 시작으로 명대 중, 말기에 편찬된 무술문헌은 대략 20여 종에 이른다. 이 중 내용이 전사되어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하여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적들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다. 명(明) 가정(嘉靖) 연간에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은 잦은 왜구의 침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특히 1555년에 왜구 53명이 침입하여 80일간 주민 4-5000명을 살상하는 가정왜란(嘉靖倭亂)이 발생한다. 조정은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을 벌였으나 왜구의 월등한 전투력으로 매번 패배한다. 특히 게릴라식의 백병전에 강한 왜구의 도법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은 기존 명나라 군대의 훈련체제를 일대 개혁하여 전투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깨닫는다. 연해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도법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구를 제압할 수 있는 원앙진(鴛鴦陣) 진법을 만들고 보병 백병전에 적합한 무술 훈련체제로 개편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훈련된 군대는 당시 척가군(戚家軍)이라 불리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왜구를 성공적으로 토벌한다.

이 과정에서 척계광은 백병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시 동남연해지역의 무술가들과 교류하며 권법, 창법, 곤법, 도법 등의 민간무술을 적극 군영훈련에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적군인 왜구의 일본도법도 연구하여 전술에 응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법과 무술은 『기효신서(紀效新書)』라는 병서로 편찬되어 명나라 중기와 말기 군사훈련의 최고 교범이 된다. 기효신서에 수록된 민간무술들

은 왜구로부터 국가를 수호한 국방무예로 격상되고 후대 무술계의 추앙을 받는다. 이러한 기류는 『기효신서』 이후로 저작된 다수의 병서와 민간 무술서에서 기효신서의 무술을 전사(傳寫)하고 인용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표 2>의 목록에 소개된 문헌의 연대와 주요내용을 보면 문헌간의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기류는 청대를 이어 민국시기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다. 중국무술사에서 『기효신서』의 비중과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표 2. 명대의 무술문헌 목록

시대	연대	문헌명칭	저자	주요내용
명	嘉靖 (1522-1566)	武編	唐順之 (1507-1560)	前集 卷5에 권법, 창, 검, 도 등에 관해 논술
	1549	唐荊川先生文集		권2에 유송산소림사, 권3에 양교두창가, 아미도인권가, 일본도가 수록
	1557	續武經總要	趙本學 俞大猷	유대유 著 권8에 劍經(荊楚長劍), 射法 수록
	1560	紀效新書18권본	戚繼光 (1528-1588)	장병단용설편(유대유 검경 수록), 등패낭선총설편, 단병장용설편, 사법편, 拳經捷要篇
	1584	紀效新書14권본		장병단용해, 단병장용해, 등패해, 요도해, 장도해, 당파해, 낭선해, 장창해, 대봉해, 辛酉刀法
	1565	正氣堂集	俞大猷 (1504-1588)	유대유의 개인문집으로 검경 수록,
	1568	江南經略	鄭若曾 (1503-1570)	권8에 雜著 兵器總論에서 남방 무술유파 소개
	1591	陣紀	何良臣 (연대 미상)	技用: 송태조36세장권, 육보권, 후권, 八閃番 등 권법과 곤, 창, 낭선, 등패 등의 병기 기록
	1603	續文獻通考	王圻 (1530-1615)	권116총론군기에 창, 도, 곤, 권법, 궁 등 유파에 관해 기술
	1607	三才圖會		人事部 권7에 『기효신서』의 권법, 창법, 곤법, 낭선 등 그림 전사
	1616	少林棍法闡宗	程宗猷 (1561-	상권: 곤법원류, 소야차 1, 2로, 5로곤보, 음수곤보, 파곤보6로, 파곤보3로, 중권:

		?)	59쪽 그림, 52首곤세가결 하권: 문답편, 곤법이론, 연법, 용법 소림곤법천중, 단도법선, 장창법선, 蹶張心法 수록
1621	耕餘剩技		
1621	武備志	茅元儀 (1594-1 640)	陣練制 教藝篇 권84-92에 무예 수록 『기효신서』의 무예, 『소림곤법천중』, 조선세법 수록
1621	涌幢小品	朱國禎 (?- 1631)	권12에 무예18事, 白打, 打拳, 打手 기록 권28에 拳棒僧에 관해 기록
萬曆	五雜俎	謝肇淛	무예18반, 소림사권법 등 무예와 연관된 사건 수록
	武備新書	謝三賓	『기효신서』의 내용과 유사, 단 권법에서 금나술 祕傳短打法 수록
崇禎	武備要略	程子頤	권5-12에 편간, 당선, 등패, 천봉차법 도설, 『경여잉기』 전문 수록
1624	易筋經義	紫凝道人	달마 창시설이 있으나 당호의 고증에 저자 근거함. 필사본(西諦本) 총론, 膜論, 內壯論, 揉法, 行功法, 木杵, 木槌式, 石袋式, 음양배합론, 內壯神勇 등
미상	白打要譜	汪伯言	失傳

명대의 무술 문헌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소림무술의 등장이다. 명 이전의 고대문헌에서 소림무술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나 전문 무술서는 <표 2>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소림무술 문헌자료가 대거 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명대의 향병(鄉兵)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五臺山, 伏牛山, 嵩山 소림사에서 무승(武僧)을 훈련시키고 정식 향병으로 편제한 것이다. 이러한 무승은 국가의 소집에 따라 정벌이나 전쟁에 참여해야했고 소림사도 여러 차례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다. 당시에 가장 전공이 높았던 무승은 三奇周右로 그는 네 번에 걸쳐 많게는 삼사백 명의 무승을 이끌고 하북성, 산둥성과 남방 운남까지 멀리 원정을 다니며 크게 전공을 세운다.* 이 외에도 1553년 승병장 月空이 관병과

* 馬明達(2004). 千年少林. 중국 관영방송 CCTV 百家爭壇, 2004, 5.

함께 절강성 지역에 출몰한 왜구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소림사 무공의 명성을 천하에 떨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명대의 군사가 당순지(唐順之), 유대유(俞大猷), 정종유(程宗猷) 등은 소림사 무승들과 활발한 무술 교류를 갖고 이러한 경험을 병서, 문집, 전문무술서로 저작하여 후대에 전한다. 이 중 정종유의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은 소림무술을 최초로 소개한 저작으로 후대에 높게 평가받으며 소림무술 저서와 기술체계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문헌이 있는데 『역근경(易筋經)』이다. 소림사 달마가 전한 것으로 소개가 되었으나 학계의 고증에 의해 허구이며, 明 말에 이런 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시작하여 각종 도서에서 와전되고, 심지어 영화나 소설에서 달마의 소림무술 창시설이 만들어지며 마치 정설처럼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역근경』이 무술사의 발전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명 말의 대표적인 소림무술로 등장한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의 소림곤법과 『역근경』의 내용은 청대의 무술 기술체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다. 이에 관해선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IV. 淸代の 무술 문헌자료 분석

표 3. 청대의 무술문헌 목록

시대	연대	문헌명칭	저자	주요내용
청	청초	十三刀法	王余佑	1936년 『太極連環刀法』으로 개명하여 출간
	1669	王征南墓誌銘	黃宗羲	내가권 기원

* 『吳淞甲乙倭變志』 “모두 철곤을 지니었는데 길이가 칠척이고 무게가 30근이었다... 적의 정수리를 지나 철곤으로 적의 머리를 때려 부수었다. (俱持鐵棍 長七尺 重三十斤...從賊頂過 以鐵棍擊碎賊首)”

1676	內家拳法	黃百家 (1634-?)	王征南 전수 六路, 十段錦, 연법, 타법, 심법 등
1662	手臂錄	吳叟 (1611-1695)	刀, 叉, 낭선, 등패요도, 봉, 김(漁陽노인), 쌍도(項元池) 등 石가창, 沙가창, 峨嵋창, 馬가창, 楊가창, 夢綠堂창법(소림승 홍전), 정종유창법 수록
1687	無隱錄		기본 내용은 『수비록』과 같으나 일부 다르게 수정됨
1723	古今圖書集成	陳夢雷	고금의 서적 중 무술자료를 수합하여 편집
	六合拳譜	李모씨	姬龍峰(1602-1680)이 창법의 원리에 착안해 창시한 권법 六勢 소개
1733	張氏武技書	張乃周 (1724-1783)	역리와 전통의학 기반하여 무술이론 정립 中氣론, 三尖到론, 養氣론, 24字론, 창, 봉, 쌍검, 24字拳 도해
乾隆	太極拳譜(經)	王宗岳	태극권론, 십삼세, 십삼세행공가, 타수요언, 타수가 1912년 하남국술관판장이 <太極拳經>으로 개칭 후 통용
1795	陰符槍譜	山右王선생	당호는 산우왕이 왕종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異論이 있음
1784	拳經拳法備要(권경)	張孔昭	명말 소림승 玄機 전수 문답가결20款, 周身秘訣12항, 下盤細密秘訣, 小林寺短打身法統宗권보, 총론, 장횡추비요, 권법비요, 30쪽 도해.
1762	羅漢行功短打	昇霄道人	가결, 권법, 소림육합권 도해, 18나한도인공법은 역근경12세와 유사. 당랑권
청말	少林衣鉢眞傳	미상	나한행공단타와 유사
청말, 민국초	重修少林正傳	미상	소림의발전전과 유사 당랑권보 수록
1842	少林拳術祕錄	미상	『권경권법비요』와 유사 綿張권법, 傷科, 藥方
청말	少林寺拳經	미상	『기효신서』, 『武經標題正義』, 『萬寶全書』의 권법, 곤법, 장법, 射法 편집 수록

1856	少林寺棍 刀槍譜	미상	권법, 곤법, 도법, 창법 서문에 저자가 南宋 少林主人으로 나왔으나 근거 없음.
	少林拳棍刀 槍譜	미상	권보, 곤보, 도보, 창보. 『소림곤법천중』, 『기효신서』에서 인용. 공법, 약처방법 수록
	少林拳棒槍 刀譜	미상	『소림곤법천중』, 단도법선, 역근경, 약처방법
청말	-역근경 도서- 衛生要術(185 8) 內功圖說(188 1) 增演易筋洗 髓內功圖說(1 895), 易筋經義服 氣圖說, 少林拳術精 義(1917)	미상	양생도인공법: 호흡, 명상, 안마 무술 공법: 排打功 방중술: 음양배합론, 하부행공법
	1882 太極拳譜(廉 讓堂本)	李亦畬 (1832-1 892)	왕종악의 『태극권보』와 武禹襄, 이역여의 저작을 모아 엮음. 별명 老三本. 태극권론, 五字訣, 身備五弓論 등
1919	陳氏太極拳 圖說	陳鑫 (1849-1 929)	진가구 진씨태극권 이론서, 역학과 경락학설로 태극권 이론 정립

명나라의 멸망(1644) 이후 청나라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제목의 무술서가 등장한다. 이 시기 무술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명대의 무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유파를 만들며 저작된 권보들이다. 『내가권법(內家拳法)』, 『육합권보(六合拳譜)』, 『장씨무기서(張氏武技書)』, 『태극권보(太極拳譜)』 등이다. 나열한 무술들은 모두 내적 수양과 양생 공법을 중시하여 창시된 내가권류의 유파다.

황백가(黃百家)는 『내가권법(內家拳法)』에서 창시자인 장삼봉이 소림무술에 정통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내가권을 창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삼봉 내

가권 창시설은 무술역사학자 당호(唐豪)의 고증에 의해 허구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림무술과의 연관성은 주목할 만하다.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명말에 크게 유행 하였던 소림무술 등을 기반으로 창시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권 유파의 탄생은 이전과 비교하여 청나라 시기 새롭게 등장한 무술 발전의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술의 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다. 명대의 무술서가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가에 의해 편찬된 반면, 청대의 무술서는 대부분 민간인 신분의 무술가들에 의해 저작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군사적 가치의 퇴색은 오히려 민간에서 무술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들은 무술의 기법을 역리(易理)와 중국전통의학의 경락학설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무술이론을 정립하고 창시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民国시기까지 계속 이어져 수많은 유파를 탄생시키고 무술의 가치를 다양화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무술과 기공 공법(功法)의 융합은 청대 소림무술서에서도 확연하게 발견된다. <표 3> 목록에 소개된 소림무술서의 주요내용과 같이 무술과 역근경 공법, 약초 처방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무술이 단순히 격기술 만이 아닌 양생과 수양의 목적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3> 목록을 통해 이 시기에 역근경이 여러 판본으로 출간되면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록의 소림무술서 중에 장공서(張孔昭)의 『권경권법비요』와 『나한행 공단타』를 제외한 다른 문헌은 명대의 기효신서, 『소림곤법천중』, 『역극경』을 기초로 하여 짜깁기 한 필사본이 대부분이다.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가치가 높지 않다.

V. 결론

중국 고대에서 무술서의 저작은 상무, 천무의 사회기풍과 군사무술 훈련체제

* 『內家拳法』 “張三丰既精於少林，復從而翻之，是名內家”

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무기풍이 강하고 보병무예가 중시되었던 한(漢)나라 때는 수박, 검도의 무술서가 저작되고 병서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남북조(南北朝)시대에 마상창법 교련서 『마삭보』가 저작되고, 상업이 번창하고 무술 경기와 공연이 유행한 송대(宋代)에는 『각력기』가 저작된다. 한(漢)나라 이후에서 명(明) 중기까지 송문천무(崇文賤武)의 기풍과 사법(射藝)위주의 무과시행 등 원인으로 무술서 저작은 두 권에 그쳤다.

명(明) 중기 이후 왜구와의 전쟁으로 군영에서 백병전을 중심으로 한 보병무예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군사가들은 중국 동남쪽 연해지역의 민간무술을 집중 발굴하여 『기효신서』, 『무비지』 등의 병서를 편찬한다. 이후 병서에 수록된 권보(拳譜)의 위상이 크게 격상되고, 후대 무술서 저작에 인용되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림무술도 반란군과 왜구토벌에 참여하여 세운 전공(戰功)으로 당시 최고의 무술로 추앙받았다. 이 시기 편찬된 『소림권법천중』과 『역근경』은 후대 무술인들에게 소림무술의 바이블로 여겨지며 다른 무술서 저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청 이후 전통철학과 의학을 기반으로 무술과 공법이 융합된 『내가권법』, 『육합권보』, 『장씨무기서』, 『태극권보』 등의 권보가 저작되며 새로운 유파가 탄생한다. 청대의 소림무술서는 『권경권법비요』와 『한한행공단타』가 대표적이고, 그 외의 소림무술서는 다른 무술서를 짜깁기 한 저작이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 松田隆智(1979). **도설중국무술사**. 서림문화사.
 陳山 저, 강봉구 역(1997). **중국무협사**. 동문선.
 马明达(1999). 略论武术古籍与武术文献学的建立. 體育文史 6期.
 周伟良(2020). 武术文献导言. 中华武术, 2020(2).
 郑勤, 王玉德, 张霞(2009). 武术古籍整理与研究. 体育文化导刊.

- 李吉远(2019). 明代武术文献及其发展特征研究. 北方工业大学学报, 31(3).
- 郭玉成(2008). 武术文献发展概述与平略. 西安体育学院学报, 25(6).
- 魏真, 周伟良(2018). 论明清少林武术文献. 中华武术研究, 7(4).
- 杨强, 田文林(2019). 明清少林武术文献演化考. 武术研究, 4(11).
- 周伟良(2012). 中国古代的历史分期及其基本特征研究. 中华武术研究, 7(1).
- 魏真, 周伟良(2017). 明清少林武术若干文献的考证及其价值. 中州学刊, 251(11).
- 陈福亮(2014). 拳谱概念阐述. 大众体育, 第81期.
- 赵洋, 于志江, 米永清(2011). 拳谱的发展与形成浅析. 谈古论今.
- 马明达(2003). 中国古代射术考. 暨南史学, 第2辑.
- 明 程冲斗, 少林棍法闡宗, 單刀法選, 長槍法選. 上海圖書館藏.
- 清 吳殳. 手臂錄.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9.
- 清 王宗岳. 太極拳譜. 人民體育出版社. 1991.
- 唐豪(1940). 中國武藝圖籍考. 現代印書館.
- 唐豪(1935). 內家拳. 中國武術學會.
- 唐豪編(1936). 王宗岳太極拳經, 王宗岳陰符槍譜. 中國武術學會.
- 唐豪編(1936). 戚繼光拳經. 上海市國術館.
- 翁士勳校注(1990). 角力記. 人民體育出版社.
- 徐震編訂(1990). 張氏武技書. 上海書店.
- 松田隆智(1984). 中国武术史略. 四川科学技术出版社.
- 習雲太(1991). 武術典籍介紹. 成都體育學院出版社.
- 習雲太(1985).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 林伯源(1994). 中國武術史. 北京體育大學出版社.
- 武術研究院編(1997).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142-143, 207.
- 徐才主編(1993). 中國武術拳械錄. 人民體育出版社.
- 馬賢達主編(1990). 中國武術大辭典. 人民體育出版社.
- 張山主編(1994). 中國武術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ABSTRACT

A Study on th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of Chinese Martial Arts

Noh, Tong-Ho(Nambu Univ.)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ocess of literature materials of Chinese martial arts, by organizing th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of Chinese martial arts in each time, making a list, and then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with the literature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writing of a martial arts book in ancient China is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martial arts system of military camp and social ethos of martialism and contempt of martial arts. In the Han Dynasty when the martial ethos was strong and the infantry martial arts were regarded as important, many martial arts books were written and classified into books on military strategies. Because of the ethos of ‘respect for literature and contempt of military’ and change in the military camp system focusing on cavalry martial arts after the Han Dynasty till the middle of Ming Dynasty, only two martial arts books were discovered in this period. Due to the battle with Japanese raiders in the middle of Ming Dynasty, the importance of infantry martial arts was highlighted again in the military camp. The military strategists compiled some books of military strategies by intensively discovering the folk martial arts in the southeast coastal area of China. After that, the status of QuanPu(拳譜) included in the books of military strategies was elevated, which had huge effects on the writing of martial arts books afterward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cription and quotation. The books <ShaoLinGunFaChanZong(少林棍法闡宗)> and <YiJinJing(易筋經)> that were compiled during this time, were used as the major basis for writing other martial arts books as they were regarded as a bible of Shaolin martial arts by the later martial artists. The combination of those two books became a chance to converge the martial arts and QiGong technique, and also had influenc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eiJiaQuan(內家拳).

Keywords: Chinese Martial Arts, Ancient Literature, QuanPu(拳譜)

논문투고일 : 2021.12.31.
심 사 일 : 2022.01.26.
심사완료일 : 2022.02.13.